

기괴한 ~ 에이 고딕 서사시

GE 그레이븐 지음



제 8 장



수도원 부지에 기이한 상황이 드리워졌고, 그 모습은 점차 드러났다.

그림자는 실제 물체에 비해 너무 길거나 넓거나 뒤틀려 보였다. 물체 자체도 실제보다 훨씬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고, 병사들의 햇불 불꽃은 너무 느리게, 심지어는 뒤로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이상해 보였고, 새로운 환경은 작은 단서들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외침은 물속에서 만들어진 소리처럼 들렸고, 대화를 반복할 때마다 귓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이명 소리도 그러 했다. 겁에 질린 말들은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한 듯 땅을 발로 움켜쥐었다. 그리고 특이한 냄새가 났다. 들장미처럼 톡 쏘는 냄새는 아니었지만, 환각 버섯의 향이 섞인 듯한 불쾌한 냄새였다. 새로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면 어지럼증처럼 감각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었고, 그 냄새는 이전의 어떤 기억과도 동떨어져 있었지만 다가오는 폭풍의 냄새처럼 분명하게 느껴졌다. 정말로, 수도원에는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상태를 초래한 새로 열린 문석만큼이나 끔찍했다.

안뜰 저편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한 병사가 기숙사를 향해 달려가며 창문 아래를 지나갔다. 위층 창문에서 기름등잔이 높이 솟아 있었다.

한 남자가 창문을 내리쳐 그를 땅에 쓰러뜨렸다. 마침 그때 다른 경비원이 나타나 쓰러진 남자를 일으켜 세워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범인들은 두 명의 자주 소년이었었는데, 위층 창문에서 몸을 내밀어 자신들이 갑자기 도망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많은 병사들이 햇불을 높이 들고 일렬로 늘어서서 사제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기숙사 입구를 에워쌌다. 흰 수염을 기른 한 수석 수도사가 수도복을 입은 포로들을 헤치고 나아가 키가 큰 의전관에게 주먹을 흔들며 소리쳤다. "당신이 주님의 종이라면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사관은 고함을 질렀다. "수도사, 방으로 돌아가!"

수도승은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여전히 소리쳤다. "당신네 상관의 명령보다는 하느님과 그분의 종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십시오! 당신들이 굽힌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뿐입니다. 이 신성한 땅에서 발걸음을 조심하고 비켜서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사관은 사제들의 항의를 무시하고 소리쳤다. "방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병사들과 사제들 사이의 충돌은 계속되었고, 수도사들은 문밖으로 쏟아져 나와 굳건한 대열 속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저 신부를 잡아라!" 한 병사가 기숙사 구석에 있는, 가운데 후드를 쓴 그림자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림자는 휙 돌아서 도망쳤다. 두 명의 경비병이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 추격했다. 격렬한 몸싸움의 신음 소리에 나뭇잎이 휘날리고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니콜라스 수사는 수도복을 찢고 나와 경비병에게 으르렁거렸다. "우리 수도사들을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경비병의 조끼를 잡아당겨 가까이 끌어당겼다.

"우리와 우리 수도원을 떠나십시오!"

미동도 없던 병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자네는 꽤 자신만만해 보이는군. 무장도 안 한 주제에 말이야." 사제가 군대에 맞서는 건가요?

니콜라스는 그를 노려보며 설교했다. "만일 적군이 우리를 에워싸고 진을 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확신을 가질 것이다."

"자신만만한 건가? 아니면 어리석은 건가?" 경비병이 물었다. "당신 말은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충고에 귀 기울이는 게 좋을 겁니다." 병사가 니콜라스에게 몸을 기울이자 수도사는 움찔했다. "제발 저를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신부님." 니콜라스는 다시 한번 움찔하며 남자가 자신의 배에 겨누고 있는 칼끝을 내려다보았다. "안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살아남으십시오!"

"머지않아 너도 그 기도를 구걸하게 될 거야, 병사." 니콜라스는 옷자락 뒤로 물러나며 그에게 충고했다.

"무기 준비!" 상사가 고함을 질렀다. 검과 긴 칼을 휘두르는 병사들이 나타났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모습. "대열을 모아!" 병사들은 일제히 기숙사로 몰려들었다. 입구를 봉쇄하고 수도사들을 건물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들은 문을 바리케이드로 막았고, 그 후 하사는 경비병들을 그 앞에 일렬로 세웠다.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을 건물 전체 둘레에 배치하여 횃불을 든 보초병들이 벽을 형성해 수많은 창문을 지키도록 했다.

수도원 경내를 가로질러 지하 묘지 입구가 있던 건물 앞 안뜰에는 스무 명 남짓한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웅기종기 모여 있었다. 지하 묘실에서 라자로를 찾을 희망을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그들은 수색을 중단하고 대성당 상부를 살펴보려 모였다. 빛나는 유령들이 종탑을 가득 메우고 기괴한 조각상들 사이를 오갔다. 젊은이들 대부분은 본 대위가 지휘하는 왕실 근위대에 새로 합류한 병사들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은발의 노련한 병사 한 명이 서 있었는데, 다른 병사들과 달리 그의 시선은 다른 곳에 향해 있었다. 젊은 병사가 횃불을 들고 있는 동안, 노련한 병사는 바스라지기 쉬운 종이 문치를 살펴보았다. 마침내 그는 병사에게 몸을 돌려 물었다. "이 양피지들이 악마 소년의 침대 안에 있었던 건가?"

"네, 쥘더미 속에 숨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경비병이 대답했다. "당신이 글을 읽을 줄은 몰랐군요."

"할 수 있습니다." 노련한 장교가 말했다. "어느 정도는요."

"그럼 뭐라고 적혀 있나요?"

장교는 손전등 불빛에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얼굴에서 더 멀리 옮겨 다시 펼쳤다. "첫 페이지는 일종의 통역사였던 투옥된 성직자가 쓴 편지인 것 같군." 그는 시선을 양피지 아래 쪽으로 떨쳤다. "그는 서명으로 자신을 나라신이라고 칭했군."

"그럼 나머지 페이지에는 뭐라고 쓰여 있나요?" 젊은 남자가 물었다.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다. "글씨를 읽을 수가 없소. 나머지 페이지들에는 모두 외국 문자 같은 게 적혀 있는데, 내가 읽어본 적은 없소." 그는 남은 페이지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 기호들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소서. 어쩌면 단어가 아닐지도 모르겠소."

젊은 경비병은 노인의 귀에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당신이 글자를 읽지 못하는 이유를 압니다. 저건 악마의 언어입니다!"

장교는 몸을 뒤로 젖히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더니 황급히 책장을 넘기며 그를 꾸짖었다. "글도 읽을 줄 모르면서 악마의 표식을 안다고 주장하는 거냐?"

젊은 병사는 성당 지붕을 가리키며 자신을 변호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악마소년과 그의 악마어 비밀 주문 때문이 아니라면, 저 날아다니는 영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처에 있던 경비병이 장교에게 그의 주장을 옹호하며 말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저것들은 지옥 구덩이에서 온 영혼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

극도로 좌절한 경찰관은 몸을 돌려 그에게 물었다. "애야, 혹시 귀신을 본 적이 있느냐 ?"

"아니요." 남자가 인정했다.

경찰관은 남자의 팔을 꽉 잡았다. "지옥에 가본 적 있느냐, 이 자식아?"

그 남자는 "저는—아니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기 서서 우리가 지옥의 영혼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노병은 팔을 놓고 허리에 손을 얹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이나 악마, 지옥불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공포와 거짓을 퍼뜨리는 것을 제 습관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문이 벌컥 열리자 병사들은 뒤돌아보았고, 숨이 막혀 비틀거리는 경비병 두 명을 발견했다. 그들을 향해 불이 번졌다. 경비병들은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병사들은 경비병들을 에워싸고 그들이 땅에 떨어뜨린 불붙은 햇불을 집어 들었다.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경비병 중 한 명이 지하 묘지 깊숙한 곳에서 맹렬한 불이 났다고 알렸다. 그는 숨을 고르고 위를 올려다보며 덧붙였다. "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 햇불 아래에서 병사들은 그을음으로 뒤덮인 뺨을 타고 흐르는 검은 눈물과 하얀 핏줄기를 보았다.

젊은 남자는 다시 한번 경찰관에게 말을 걸며 문을 가리켰다. " 악마의 마법이 아니라면, 돌로 된 터널이 갑자기 불타오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악마소년의

병사들이 불을 찾아 장교를 지나쳐 달려갔고, 젊은이가 그들을 따라가려 하자 장교는 그의 팔을 움켜잡아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그는 젊은이에게서 햇불을 빼앗으며 말했다. " 네가 불길을 쫓는 동안 난 어둠 속에서 서 있을 수 없어 , 꼬마야."

“불을 찾고 싶지 않으세요?”

냉담한 장교는 껄껄 웃었다. "아마도 그들이 눈이 멀고 숨이 막힌 채 돌아올 시간을 좀 주시겠죠 . 만약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숨을 참아 불을 찾을 수 있다면, 그때 무슨 짓을 할지 생각조차 못 할 겁니다 . 연기를 피해 도망치기 전에 불길 에 불일을 보는 것조차 생각 못 할 테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문 쪽을 가리켰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들과 함께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출입구를 통해 뛰쳐나갔다. 경찰관은 아직 남아 있는 두 남자에게로 돌아섰다.

땅바닥에 엎드려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럼, 다른 사람들처럼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들 중 한 명이 간신히 일어서서 "우리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고통이 길잡이가 되면 배우는 건 빠르지." 병사는 재미있다는 듯이 말하며 심호흡을 했다. "그럼, 나를 따라오시오. 물과 물통을 찾으러 가는 길ियो." 세 사람은 수도원 우물을 찾아 식당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의전 부사관은 기숙사를 나와 목욕탕 쪽으로 곳곳하게 걸어갔다. 건물 앞쪽으로 다가가 몇몇 병사들과 마주치자 그는 "자백을 받아냈나?" 라고 외쳤다. 부사관이 병사들 사이로 들어서자 햇불이 갈라지면서 오른쪽 팔이 없는, 키가 작고 더러운 외팔이 병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발치에는...

흐느끼는 타테우스는 목욕탕 벽에 등을 기대 채 땅바닥에 앉았다. 남자가 돌아섰다. 손가락에 묻은 피와 머리카락을 바지 자락에 닦아내며 그는 쉼 목소리로 하사에게 대답했다. "악마 소년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탄로가 날 것 같습니다, 하사님."

하사는 자신의 부츠 근처 땅바닥에 찢어지고 진흙투성이인 얼굴 가리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병사들과 떨어져 서 있는 경비병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그의 발치에는 또 다른 기형적인 성직자 소년이 부서진 채 거의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 미겔의 입김이 아니었다면 그 소년은 아마도...

작은 시체였다. "햇불을 들어라." 하사는 가장 가까이 있던 병사에게서 손전등을 받아들며 명령했다. 그는 타테우스 앞에 쫓그리고 앉아 그의 기괴한 모습을 살펴본 후 말했다. "나사로스 기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말해 주면 기숙사로 돌아갈 수 있다." 타테우스는 그저 울기만 했다. 그의 머리는 마치 너무 무거워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 듯 흔들렸다. "좋습니다." 병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돌린 후, 한쪽 팔이 없는 남자에게 말했다. "그의 외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고, 어린아이들은 쉽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들은 한숨을 쉬며 제자리에서 몸을 움직였다. 어색하고 고통 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는 순간을 되짚어보았다. 그는 팔이 없는 병사에게 물었다. "대위님은 아직 교회에 계십니까?"

"저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하사는 경비병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며 침을 뱉었다. "균형을 맞춰라! 자백을 원하는 거지, 죽은 소년들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손대지 마라!"
그 승려."

외팔이 병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어떤 승려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사는 의식을 잃고 무방비 상태로 쓰러진 미겔 옆에 멈춰 서며 대답했다. 그는 경비병에게 미겔을 엄호하라고 명령했고, 경비병은 갑자기 자신의 조끼를 벗었다. 소년을 감싸 안으며, 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한 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안뜰.

수도원 북쪽 모퉁이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마치 조각상처럼 성당 측면 입구를 지키고 서 있었다. 땡! 작은 돌멩이 하나가 병사 중 한 명의 투구에 맞았다.

경비병들과 그는 어둠 속을 들여다보았다. 쿵! 더 큰 돌멩이가 다른 병사의 투구를 강타하여 기울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앞으로 달려나가 검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범인을 찾기 위해 그림자 속을 살살이 뒤졌다.

“돌 던지는 사람이야.” 첫 번째 경비병이 속삭였다.

“내가 저놈을 혼쭐내주겠다.” 두 번째 보초병이 으르렁거리며 무기를 내려놓았다. 대열로 복귀하는 중.

쿵! 성당 상단 난간의 거대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 눈사태는 사람들을 날려 버렸다. 눈사태가 잦아들자 그들은 온몸에 멍이 들고 정신을 잃은 채 땅바닥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격앙된 본 대위가 성당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는 경비가 허술한 입구 위로 손전등을 비춰 근처 바닥에 먼지투성이 병사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음하며 머리를 문지르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병사들. 그들은 벌떡 일어나 잔해가 흩어진 경비 초소로 달려갔고, 바로 그 순간 흐트러진 모습의 수도사 두 명이 교회 문에서 나와 무너진 돌에 걸려 넘어졌다. 본은 문에서 떨어져 무너진 돌들 사이로 발을 디뎠다. 가장 큰 돌은 사람을 덮칠 수도 있을 정도였다. 클로디우스와 그레빌도 그를 따라갔다. 대장은 고개를 들어 지붕 처마의 넓은 부분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마침내 그는 병사들이 늘어난 곳으로 돌아와 가장 키 큰 경비병의 팔을 잡고 물었다. “내가 이 문들을 잠그라고 명령하지 않았나?”

“대위님, 죄송합니다.” 병사가 대답했다. “방금 전 교회가 우리를 하마터면 죽일 뻔했습니다.”

본은 그를 흔들었다. “젠장! 추기경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뒀어?”

“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이 문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기경님 께서 선생님의 명령으로 다른 수도사를 모시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선장은 이를 악물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으르렁거렸다. “나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클로디우스가 급히 앞으로 달려나왔다. “대위님, 부하들이 추기경이 시종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까?”

본은 그의 손을 놓았다. “수도사에게 대답해.”

“네, 논문이 많아요.”

그레빌은 눈물을 닦고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그는 목덜미를 문지르며 블라시 추기경의 이상한 행동들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럼 수도사를 데리러 기숙사에 갔다는 말인가? 대위님, 저희는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기숙사로 갔나요?" 본이 물었다.

"아닙니다, 장군님. 그는 북쪽 수도원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사는 그 방향을 가리키며 인정했다. "그는 부상을 입은 듯 보였고, 본인이 말했듯이 도움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본은 병사를 대열에서 밀쳐내 입구 벽에 내동댕이쳤다. "이 빌어먹을 자식! 의전관이 수도사들을 기숙사 안에 가둬놨다고! 수도원 담장 밖에 있는 유일한 건물은—" 대위는 말을 멈추고 클로디우스를 향해 돌아서며 눈을 가늘게 떴다. 햇불 아래에서 수도사는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지켜보았다. 본은 병사를 놓아주고 문득 떠오른 가능성에 고개를 저었다. "설마—추기경이 그럴 리는 없겠지."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 성당 내부를 향해 소리쳤다. "모두, 경위의 지휘 아래 마당에 집결하라!" 젖고 더러워진 백여 명의 병사들이 성당에서 쏟아져 나오자, 본은 그중 세 명을 끌어냈다.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다. "너희들은 나와 동행해라. 무기를 준비해라." 그는 클로디우스를 향해 돌아서서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쿡 찔렀다. "내가 이 추기경을 되찾지 못하면—" 본은 세 명의 병사를 뒤에 두고 수도원의 북쪽 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서 있는 경비병들에게 질문하고, 햇불을 흔들고, 관리인을 땅에 밀쳐 넘어뜨린 후 수도원을 뛰쳐나갔다. 마침내 그는 마구간에 가까워지자 걸음을 늦추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마구간 안에서는 겁에 질린 말들이 코를 킁킁거리고 발을 구르며 재갈을 물어뜯고 고삐를 잡아당겼다. "대위님이 다가오십니다!" 말과 마구간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병사 중 한 명이 외쳤다. 병사들은 마구간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고, 가장 나이 많은 병사는 헛간 입구 옆에서 차렷 자세를 취했다.

"추기경을 체포해!" 본은 병사에게 다가가며 외쳤다.

"대위님?" 병사가 그에게 물었다.

"그는 여기 없나요?"

"아니요, 사장님."

본은 걸음을 멈추고 당황한 듯 수도원 쪽을 돌아보았다.

"대위님, 이미 출발했습니다." 병사가 덧붙였다.

본은 몸을 돌렸다. "설마 그가 그냥 떠나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겠지!" 그는 마구간으로 달려가 손전등을 비추며 내부를 살폈다.

병사가 그를 따라갔다.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수도사를 모셔 오려고 무라트 마을로 가는 겁니다."

"난 그런 명령 같은 거 안 내렸어, 이 멍청아!" 본은 헛간 기둥을 쿡 내리치며 텅 빈 헛간을 응시했다. 말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이 공간. "내 말은 어디 있지?"

병사는 대답을 머뭇거렸다. "각하, 음... 추기경께서 말씀하시기를, 각하께서— 그분께 각하의 말을 택하라고 명하셨다고 하셨습니다—그 말이 더 믿음직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본은 병사를 뒤로 밀쳤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만하지!" 그는 다른 마구간 경비병들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당신 대장님의 말이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당연하겠어!"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거의 낄낄거렸다. "내 말을 그 녀석에게 줬다고?"

"그분은 교황청의 추기경이십니다, 대위님." 경비병이 대답했다. "저희는 추기경을 보좌 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본은 심호흡을 했다. "정말 깜빡했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준비해라, 가장 빠르고 잘 쉬었던 말 네 마리를." 그는 네 명의 남자를 지목했다. "너희가 추격하여 추기경과 그의 서류를 확보하라. 준비!"

"너희들이 직접 타라." 남자들은 헛간 벽에 모여 소변을 보았고, 대장은 꿀꺽거리는 소리 사이로 추가 지시를 내렸다. "이제..."

이 수도원에서 나가는 길은 하나뿐이다. 너희 둘, 체구가 작은 놈들은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여 무라트까지 가는 동안 절대 속도를 늦추지 마라. 그 후에는 되돌아와서 그림자만 드리운 채 말을 끌고 가면서 길가와 덤불 속을 조용히 수색하여 숨어 있는 부상당한 추기경을 찾아라." 그는 덩치가 큰 두 병사의 등을 툭툭 두드렸다. "너희는 느린 말을 타고 꾸준히 나아가라."

마을 쪽으로 가되, 앞서 가는 두 사람을 앞지르지 마라. 내가 뭘 기대하는지 알잖아. 추기경과 그의 모든 서류를 내게 돌려보내야 해. 그것도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게 말아야."

"알겠습니다, 대위님."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말을 준비하며 대답했다.

본은 헬멧을 벗고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 후, 자신의 말이 마지막으로 묶여 있던 빈자리를 훑듯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눈에 불꽃을 띤 채 나이 든 경비병에게 다시 돌아섰다.

"그리고 이 마구간에 있는 모든 말 중에서 추기경은 오직 한 마리, 즉 내 말만 골라서 무라트에서 온 사제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했다고 당신은 믿게 된 겁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대위님." 병사는 불타는 듯한 시선에서 눈을 돌리며 대답했다.

"우리가 알았더라면—"

"캉!" 본은 몸을 돌려 헬멧으로 병사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린 후, 의식을 잃은 병사의 가슴에 헬멧을 던졌다.

"나와 추기경은 안 돼! 나와 성인도 안 돼!" 본은 고함을 질렀다. "나와 하느님도 안 돼! 너희 명령은 오직 나에게서만 나온다고!"

말을 탄 병사가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출발할까요, 대위님?"

"서둘러!" 본이 소리치며 그들을 재촉했다. 말을 탄 네 사람은 마구간에서 뛰쳐나왔고, 말발굽 소리는 밤속으로 사라져 갔다. 희미하게 남은 어둠 속에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겉으로는 무표정해 보이는 본은 마구간 기둥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둥근 달이 떠 있었고, 그 안에 선명하게 드러난 프라이어 그레이트의 껍질이 벗겨진 얼굴과 똑같은 모습을 그는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본은 세 명의 병사와 함께 마구간을 나섰다. 그가 수도원 문에 들어서서 병사들에게 대성당 옆 기존 대열에 합류하라고 명령하자마자, 수많은 병사들과 사제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클로디우스, 그레빌, 키가 큰 의전관, 그리고 나이 지긋한...

은발의 장교. 본은 키 큰 병사에게 질문했다. "제가 알기로는 신부님들이..."

기숙사는 안전한가요?

"네, 대위님. 뚱뚱한 수도사는 제가 목욕탕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팔을 툭 쳤다. 그리고는 노련한 장교에게로 돌아섰다. "그럼 악마 소년 수색은 어떻게 됐지?"

"우리는 모든 터널과 지하실, 좁은 통로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터널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수도원 우물 옆에 양동이를 몇 개 모아 왔습니다." 남자는 식당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가 불을 끌까요?"

대위는 대답하기 전에 땅을 훑어보았다. "아니, 그냥 타버리게 놔둬." 그는 장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지하 묘지를 봉쇄하고 경비를 강화하길 원한다. 만약 그가 터널에 숨는다면, 나는..."

"연기로 그를 쫓아내겠다." 본은 손가락을 튕기며 남쪽 수도원 문을 가리켰다.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묘지를 샅샅이 뒤져라. 모든 묘비를 뒤집어 보고, 모든 나무를 베어내라.

그래도 그를 잡지 못하면, 그림자 속에 보초병 몇 명을 배치하여 그의 흔적을 은밀히 감시하게 하라." 본은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려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머지않아 그는 숨을 곳을 찾게 될 것이다."

클로디우스는 병사 옆으로 다가가 헛기침을 했다. 장교는 슬쩍 대답했다.

나라신은 성직자 예복 아래에서 바스라지기 쉬운 종이 뭉치를 꺼냈다. "이것이 있습니다, 대위님." 그는 뭉치를 본에게 건네며 말했다. "화재가 나기 전에 우리는 이 종이들을 아이의 침대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클로디우스와 그레빌 사이로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다. "수도사들은 이 종이들이 의미 있는, 어쩌면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은 클로디우스를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그는 손전등을 그레빌에게 건네주고 양피지를 펼치며 장교에게 묘지를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나는 목욕탕에 있을 것이다. 악마 소년을 잡으면 데려오너라."

"예, 대위님." 노병은 급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본은 의전 담당관에게 "성당에 있는 병사들을 데려 와 기숙사로 데려오고, 병력을 두 배로 늘려라"라고 명령했다.

"알겠습니다." 키 큰 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레빌의 햇불 아래에서 본은 나라신의 편지를 훑어보았고, 그동안 하사는 병사 100명을 모아 안뜰을 가로질러 행진시켰다.

마침내 클로디우스가 입을 열었다. "함장님,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은 고개만 끄덕이며 계속 책을 읽었다.

그레빌은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수년 동안 깨닫지 못했군요. 적어도 짐작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나사로 는 진정으로 살아남은 기괴한 존재, 즉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반은 햇빛이 그를 완전히 파괴할 것을 두려워하여 지하 묘지 안에서 그의 얼굴을 가려 숨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고려해 보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미묘한 징후들은 도처에 있었는데, 아마도 우리는 모두 그것들을 무시하기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몸을 뒤로 젖혔다. 그리고는 시선을 올려다보며 성당 지붕 위에 늘어선 조각상들을 바라보았다.

본은 그레빌의 손을 잡고 나라신의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는 동안 잠시 손전등을 페이지 위에 고정시켰다. 그리고는 황급히 페이지를 다시 말아 올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무언가를 읽었다. 클로디우스. "수도원에 머무는 동안 당신은 세계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본은 손에 든 양피지 두루마리를 마구 내리쳤다. 귀찮은 수도사들의 말을 단 한 마디라도 더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클로디우스는 몸을 굳혔다. "대위님, 부탁드립니다. 저 양피지들은 아주 오래되고 손상되기 쉽습니다." "혹시 제가 그 서류들을 보관하는 임무를 맡게 되실까요?" 클로디우스가 서류 멍치에 손을 뻗으려 하자 본은 얼굴을 찌푸리며 그것들을 낚아챘다. 그는 서류들을 조끼 주머니에 넣고는 좀 더 부드러운 어조로 제안했다. "두 분은 저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서 서류에 대해 아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를 만나주시는 대가로 목욕탕에서 저의 모든 도움을 기대합니다. 저는 똥똥한 수도사에게서 악마 소년의 행방에 대한 자백을 받아낼 생각입니다."

클로디우스는 그레빌을 잠깐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대위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은 "그 똥똥한 수도사 말이야, 개는 자기를 뭐라고 부르더라?" 라고 말했다. "델론이요." 그레빌이 말했다. "델론 오디노요. 그분도 수석 수도사이고, 문석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클로디우스는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이 찾고 있는 그로테스크, 즉 악마 소년은 바로 그 이름에 해당합니다." "라자루스 대위님." "오디노," 본은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목욕탕 쪽으로 걸어가면서 말했다. "자, 이 서류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레빌이 길을 밝혀주었고, 클로디우스는 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 문서들은 거의 300년 전에 기괴한 자가 필사한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문서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 페이지에서, 이 기괴한 그림은 문석에 새겨진 글자를 모두 번역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대위 님, 저는 수백 명의 고위 수도사들이 그 표식을 해독하기 위해 수많은 제본들을 모아왔습니다. 저희 또한 고위 수도사들이기에, 저희의 제본들조차도 필사실에 보관된 비밀스러운 서적들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 수도원의 역사상 그 어떤 수도사도 그 표식을 번역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의 그로테스크가 저희 수백 명이 실패한 것을 성공시킨 것 같습니다. 게다가 라자루스는 그로테스크입니다. 제가 직접 보았듯이 그는 여러 언어로 읽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위님의 부하들이 그의 소지품에서 그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수도원 문석에 새겨진 표식이 오직 그로테스크만이 해독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본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내가 왜 폐하의 왕실 근위대 대장인지 아십니까?" 본은 날카로운 반박으로 스스로 질문에 답했다. "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혹은 있을 수 있는 그대로 보지, 결코 없는 그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클로디우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대장의 뺨에 있는 흉터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악마 소년이 그로테스크이고, 오직 그로테스크만이 그 표식을 해독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러나 그 추기경은 고양이처럼 귀가 크지도 않았고, 개처럼 이빨이 날카롭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문서로 그 돌에 새겨진 글자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의 말씨는 라틴어였으니, 당신들이 기괴한 이야기로 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당신들 사제들이 모두 실패한 그 글자를 이 추기경이 해독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어느 쪽입니까?"

그레빌은 고개를 저었다. "추기경의 필사본을 봤습니다. 대위님께서 가지고 계신 필사본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어쩌서 그토록 섬세하고 부서지기 쉬운 종이에 글을 쓰셨을까요?" 그레빌은 클로디우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상급 평의회 추기경으로서 그는 외경 보관소에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클로디우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번역본들도 이 나람신 성직자가 필사한 것일까요?"

본은 조끼에서 말아 놓은 종이들을 꺼내 펼치며 물었다. "그렇다면 이 종이들로 추기경과 그의 시종들 없이도 돌을 달을 수 있다는 말인가?"

클로디우스는 "네, 대위님. 그 페이지들을 이용하면 문석을 달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짐작이 맞다면, 통역사 역할을 해줄 기괴한 기사 라자루스가 필요할 겁니다."라고 대답했다. 본은 페이지들을 더듬어 보았지만, 상형문자 같은 표시만 보였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정확합니다, 대위님." 클로디우스는 위엄 있는 턱을 치켜들고 본에게 통명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페이지에는 표시만 있을 뿐, 번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먼저 기괴한 기사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본은 입술을 깨물고 황급히 책장을 다시 말아 조끼 아래에 집어넣었다. 앞으로 나아가며 그는 클로디우스의 옷자락을 두 움켜잡고 수도사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겼다. 그레빌은 뒷걸음질 치며 클로디우스의 간계를 질책하는 대장의 불타는 듯한 초록빛 눈동자에 놀란 시선을 고정했다. "자네는 마치 내가 자네가 천천히 풀어놓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어리석은 관객 이라도 되는 양 묘사하고 싶어 하는군!" 그는 더욱 세게 손을 뻗어 얼어붙은 수도사를 자신의 수염에 바짝 끌어당겼다. 클로디우스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침방울과 뜨거운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다. "아니면 자네는 나를 자네가 일부러 질질 끄는 이야기 속의 불쌍한 등장인물 로 여기는 건가? 내 인내심이 바닥날 때까지 말이지! 어느 쪽인가?" 그는 그를 흔들었다.

"정말 아닙니다!" 클로디우스는 숨을 헐떡이며 애원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대위님. 저는 그저 대위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뿐입니다!"

수도사의 복종적인 태도에 만족한 본은 그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클로디우스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고, 본은 그레빌과 함께 자신의 작전 계획을 공개적으로 검토했다.

"돌에 새겨진 표시를 알았으니, 이제 뚝뚝한 수도사를 심문하고, 악마 소년을 찾아 붙잡아 돌을 봉인하는 데 필요한 글자를 번역하게 해야겠다."

본은 클로디우스를 향해 돌아서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충고했다. "지금부터 당신은 내가 알아야 할 것만 말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성직자라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제 말씀을 알아듣겠습니까?"

클로디우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수도사는 잠시 눈빛을 교환한 후 목욕탕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본을 뒤쫓아갔다. 본은 목욕탕 모퉁이를 돌아 안으로 들어오자 건물 안에서 오디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재네들은 아무것도 몰라! 애들은 내버려 뒀. 들어와서 나한테도 똑같이 해."

네 멀쩡한 팔 하나를 부러뜨려 버리겠다!

"그만!" 본이 으르렁거렸다. 한쪽 팔이 없는 병사는 타테우스를 놓아주고 앞으로 달려나가며, 시종 소년이 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보고는 재빨리 차렷 자세를 취했다. 목욕탕 저 구석에서 몇몇 경비병들이 갑자기 나타나 준비 태세를 갖췄다.

남자들. 대위는 병사를 심문하기 전에 타테우스와 미겔을 흘끗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야?"

이러한 행동들은 누구의 명령에 따른 것인가?

"저희는 악마 소년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자백을 받아내는 겁니다, 선생님."

본은 그레빌에게서 핫불을 빼앗아 병사의 손에 쥐여주었다. 그때 갑자기 오디노의 목소리가 건물 안의 어둠을 뚫고 울려 퍼졌다. "아무것도 없어."

뽑아내라! 날 풀어주면 네 나머지 팔도 뽑아내겠다! 그 새 다리 같은 팔로 할 수 있는 게 고작 어린 기사나 때리는 거냐!" 외팔이 병사는 오디노의 조롱 섞인 말을 무시하고 눈을 굴리며 대위에게 자신의 명령은 의전관에게서 내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본은 두 사람 사이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았다.

그는 대답하기 전에 매 맞은 시종 소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들의 모습을 보니, 자네는 처음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는 것이 없군. 하지만 자백을 받아낸다는 구실로 저들을 죽이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네." 그는 타테우스를 가리키고는 경비병들을 가리켰다. "아마 자네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네의 잔혹한 방법을 목격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군."

"저, 음, 제가 보기엔 그들이 자백할 의향이 없는 것 같군요, 대위님." 병사가 인정했다. 본은 그의 얼굴에 바짝 다가가 으르렁거렸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의 행방을 모르는 건가? 어떻게 생각해?"

"알겠습니다, 대위님." 병사는 자세를 바로잡고 차렷 자세를 취하며 대답했다.

"그럼 이 아이들을 기숙사로 데려가!"

병사는 햇불을 들고 돌아서서 잠시 타테우스 위로 몸을 숙였다가 다시 일어섰다. 그는 소년을 일으켜 세울 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레빌은 비웃었고 클로디우스는 그를 노려보았다. 본은 병사들에게 구타당한 소년들을 기숙사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그는 나머지 사람들을 목욕탕 입구 밖에 배치한 다음, 한쪽 팔이 없는 남자에게 속삭였다. "자네는 내 햇불을 든 자네다. 자네는 자백을 받아내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네." 그리고는 경비병을 건물 안으로 안내했다.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손전등 불빛이 비추자 얼굴이 붉고 더러워진 오디노가 목욕탕 바닥 한가운데 있는 나무 기둥에 손목이 묶여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본은 수도승에게 다가가 그를 살펴보았다. 오디노의 승복 왼쪽 소매는 찢어져 있었고, 오른발에는 샌들만 신고 맨발로 서 있었다. "부하들이 당신을 거칠게 대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바쁜 임무 속에서는 때때로 기본적인 예의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본은 오디노의 어깨를 토닥였다. "당신을 기숙사로 데려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는 대로, 당신을 학대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오디노는 으르렁거렸다. "이반 신부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따끔하게 충고해 주시겠습니까?"

본은 이를 악물었고, 햇불 빛 속에서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다. 그는 묶인 수도승 주위를 돌며 꼼꼼히 살폈다. 오디노는 그림자 속에서 클로디우스와 그레빌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너희 비열한 승려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은... 아니, 그렇지 않아?"

"지하 묘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클로디우스는 귀족 특유의 오만한 눈빛으로 오디노를 내려다보았다.

본은 오디노의 얼굴 바로 앞에 서서 말했다. "내 의무나 고민은 너와 상관없어.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이 수도원의 사제들에게 더 이상의 불행이 닥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클로디우스와 그레빌을 가리켰다. "보세요? 당신네 성직자 형제들은 수도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레빌은 팔짱을 끼고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오디노는 대장을 노려보며 그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다.

그의 병사들은 사제들과 시종들을 기숙사 안에 가두었다. 본은 계속해서 말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결박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라자로라는 이름을 가진 시종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행방을 알려주시면 당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은 몸을 기울여 묶인 수도승에게 속삭였다. "폐하의 근위대 대장으로서 약속드립니다."

오디노는 속삭이듯 "그 자식 아버지한테 가서 어디 있는지나 물어봐!"라고 비웃으며 본의 수염에 침을 뱉었다. 대장은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곧바로 팔을 내렸다. 그는 뺨을 닦고 손을 흔들며 클로디우스와 그레빌을 불렀다. 두 수도사가 다가왔고, 본의 조끼에 달려 있는 책들을 발견한 클로디우스의 탐욕스러운 눈은 대장이 말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것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제들의 고결한 이성이 작용할 수 있도록 수도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본은 책들을 낚아챘다.

그는 경비병에게서 손전등을 받아 그레빌에게 건네주며 오디노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그놈이 이빨이 아직 붙어 있을 때 말아야."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 명의 수도사를 남겨두고 목욕탕을 나섰다. 그들 자신에게.

클로디우스는 오디노에게 달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으니,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라고?" 오디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이반이 죽고 내가 이 자리에 묶이게 된 건 모두 당신 짓이야! 그리고 당신이 내게 안겨준 이 비참한 운명은 어찌란 말이나!" 이제 버려지고 죽음을 맞이할 운명인 나사로를 두고, 당신은 성직자 형제로서 불쌍한 나사로에게 조금의 관심이나 부끄러움도, 동정심이나 자비심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클로디우스는 그레빌을 흘끗 본 후 변명하듯 말했다. "당신을 체포하라고 명령한 건 대위였습니다."

"당신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디노가 소리쳤다. "당신들은 추기경을 앞세워 이반과 나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들이 감독관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하 묘지라고!" 클로디우스는 깜짝 놀라 콧방귀를 끼었다. 오디노는 어깨 너머로 이반이 탈출을 위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변소를 살폈다. "클로디우스,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서, 그리고 이 수도원의 형제로서 저를 풀어주십시오. 제가 스스로 풀려날 기회를 주십시오. 당신도 알다시피, 저도 당신에게 똑같이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레빌은 입을 가리며 말했다. "선장님이 바로 밖에 계시는데, 저는 당신들과 함께 묶이고 싶지 않습니다!"

클로디우스는 이에 동의하며 "쉽게 탈출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방법이 있어, 클로디우스. 자네가 이 일에 가담한 티를 내지 않고도 날 도울 수 있어. 내가 장담하는데..."

"그만!" 클로디우스가 외쳤다. "라자로의 행방을 자백하면 대장이 당신을 풀어줄 겁니다. 이 수도원의 모든 수도사를 대표해서 이 일을 끝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짓이다."

“제가 그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는 우리 모두를, 심지어 너 자신까지도 버렸구나! 대장은 이반이 자신에게 반항하자 그를 죽였다. 그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라. 자, 이제 나사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말해라!”

오디노는 눈에 띄게 낙담한 듯 시선을 떨궜다. 그는 바닥을 응시하며 힘없이 미소 지었다.

“당신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앙인으로서 그 아이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고 맹세한다면, 제가 당신을 그 아이에게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레빌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클로디우스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우리를 바보로 보는 건가, 오디노? 라자로가 체포되면 대장은 자네를 풀어주고 싶어 안달이 나 있을 걸세."

오디노는 목욕탕 입구를 잠시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나는 라자로를 버릴 수 없어. 대장이 이반처럼 그를 곧 죽일 거야. 하지만 약속해 줘. 그를 수도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내가 그의 은신처를 알려주겠어. 라자로의 운명은 네 손에 달렸어!"

두 수도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클로디우스는 동의했다. "좋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나사로가 수도원 경내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의 행방을 말해 보아라."

오디노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양심적인 수도사에게 속삭였다. "클로디우스, 자네는 좋은 사람이네. 나는..."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나사로는 저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문간을 바라보며 일부러 말을 더듬었다.

클로디우스는 더 가까이 다가오며 "다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 있습니까?"

오디노는 등을 기둥에 바짝 기대고 다시 한번 속삭였다. "나사로는 숨어 있어—" 그리고는 발뒤꿈치로 클로디우스의 가슴을 걷어차다. 사제는 뒤로 날아가 바닥을 굴러떨어지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레빌은 숨을 헐떡이는 스승에게 달려갔다.

“나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니다!” 오디노가 으르렁거렸다. “나는 나사로를 지켜냈다. 나는 그도, 그의 아버지도 그 누구를 위해서도, 특히 군인들과 그들의 꼭두각시 제사장들을 위해서라면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캡틴!” 그레빌이 소리쳤다. “캡틴!”

본과 그의 부하들은 문을 박차고 들어와 두 수도사를 에워쌌다. 대장은 오디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다. "사제의 고상함은 개뿔이군." 본은 투덜거렸다. "또 다른 불같은 성격의 수도사군." 그는 그레빌에게 클로디우스를 목욕탕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부하 두 명에게 오디노의 다리를 묶으라고 명령했다. 오디노는 발길질을 했고, 대장은 더 많은 병사들을 불렀다. 수도사가 완전히 묶이자 그는 비로소 앞으로 나섰다. "네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악마 소년은 어디에 숨겼지?"

“악마소년이 뭐지?” 오디노가 물었다. “그런 건 본 적이 없는데 ”

본은 오디노의 가슴에 주먹을 내리쳤다. 그는 기침하는 신부에게 “다시 말하지만, 악마 소년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나는 평생 악마 소년을 본 적이 없어—”

오디노의 턱이 또 다른 주먹에 맞아 부러졌다. 피와 침이 사방으로 튀었다.

본은 "또 악마 소년이야?" 라고 고함을 질렀다.

"용서합니다, 대위님." 오디노는 어눌한 말투로 말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디노는 또 다른 타격에 몸을 웅크렸다.

"악마소년이라고?" 본이 물었다.

오디노는 고개를 들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색하게 윈크했다. 본의 속은 부글 부글 끓었다.

그 후 오디노는 수도원에서 짧은 체류 기간 동안 군인으로서의 모든 삶을 통틀어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 용서할 수 없는 실수, 그리고 어처구니없는 어리석음을 경험한 한 대위의 거침없는 분노를 견뎌야 했다. 그러나 타는 듯한 고통이 가라앉고, 피가 흘러나와서는 안 될 곳에 고인 후, 오디노는 더 이상 초조해하지 않았다. 눈이 부어올라 감겨버리고 다음 매질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귓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대위의 고함 소리를 잠재우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 와 함께 이반, 라자로, 미겔, 타테우스와 함께 지하 묘지에서 보냈던 즐거운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을 때, 그는 더 이상 이를 악물고 웃을 필요가 없었다. 결국, 인생은 그에게 관대했으니까.

“일어나!” 본은 소리치며 묶여 무릎 꿇은 수도승에게 물 한 양동이를 쏟아부었다. 오디노는 숨을 헐떡이며 발뒤꿈치로 몸을 지탱했다.

그레빌은 그의 곁으로 달려가 팔을 붙잡았다. "오디노, 제발, 대위님께 말씀드려!"

오디노는 신음하며 수도사에게 몸을 기대었다. "저는 저는 사죄와 임종성사를 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니콜라스 수사를 모셔오십시오. 저는 오직 그분께만 고해성사를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사제는 필요 없어! 나에게 고해성사해!" 본은 소리치며 양동이를 벽에 내던져 산산조각냈다. "나에게만 말해!!"

클로디우스는 여전히 가슴을 움켜쥔 채 본에게 다가갔다. "대위님, 실례지만, 우리는 요청이 있으면 임종성사를 집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신성하게 제정된 법이며, 교황 성하께서 명하시고 교황청의 명령에 따라 엄격히 시행되는 우리의 비굴한 의무입니다. 그가 선택한 사제에게 마지막 고해성사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클로디우스는 속삭였다. "부디, 이 한 가지 요청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고해성사를 통해 니콜라스 수사에게서 라자로 그로테스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의 선배로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득의 수단."

경비병들이 목욕탕 입구에서 길을 비켜주고 숨이 턱까지 찬 병사 한 명이 간신히 그들을 헤치고 들어오자, 본은 클로디우스를 노려보기만 했다. 그 병사는 본에게 다가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대위님, 잠시 실례해도 될까요? 교회로 급히 가셔야 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본은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병사는 주변의 호기심 어린 얼굴들을 훑어본 후 본의 귀에 몸을 기울여 부드럽게 말했다. "중요한 일입니다, 대위님."

본은 씩씩거리며 돌아서서 클로디우스의 가슴을 톡 쳤다. 수도사는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내려다 보았고, 대위는 그에게 말했다. "사제에게 성례를 허락하십시오. 제가 돌아오면 악마의 행방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클로디우스가 동의하자, 본은 가장 가까운 경비병에게 돌아서서 그레빌을 가리켰다. "그를 기숙사로 호송하십시오. 임종 성례를 위해 수도사를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니콜라스 수도사 만 데려오십시오." 그는 햇불을 챙겨 병사를 따라 건물 밖으로 나갔다. 곧바로 클로디우스는 그레빌을 가까이 끌어당겨 속삭였다. "돌아오시면 라자로의 니콜라스 수도원에서 악마의 행방을 알아보십시오."

그의 행방을 알아내도록 해라. 가르디아 수도원에서 남은 생을 최대한의 참회와 침묵 속에서, 물론 주님께 대한 변함없는 경외심으로 보내도록 내가 직접 책임지겠다고 그에게 분명히 전해라. 자, 이제 나는 대위를 따라가야 한다. 서둘러야 한다. 오디노가 세상을 떠나 그 기괴한 자의 행방에 대한 모든 것을 영원히 가져가기 전에 말이다." 그레빌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사와 함께 떠났고, 클로디우스는 멀리서 본을 뒤쫓으며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대위가 성당 모퉁이를 돌아 병사는 성당 외곽 담장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햇불 불빛 아래 맨발을 돌린 채 군화 옆 땅바닥에 일렬로 앉아 있는 남자들이 있었다.

“방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위님.” 병사는 본을 교회 옆문으로 안내한 후 출입구를 가리켰다. “보십니까? 저기요. 불타는 안개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본은 입구에 가까워져 문턱에서 꾸준히 스며 나오는 검은 안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땅을 가렸다. 그는 쪼그리고 앉아 휘몰아치는 안개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보다가 물집 잡힌 손가락 끝을 재빨리 뺐다. 병사가 말했다. "맞습니다, 대위님.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본은 안개를 뒤로 물러나며 손가락 냄새를 맡았다. 그는 성당을 둘러보았다.

"병사, 어서 기숙사로 가서 군의무관에게 보고하십시오."

나는 그의 부하들 중 비교적 휴식을 취한 3분의 1을 수도원 우물로 소집한다. 우물 옆에는 양동이가 놓여 있다. 병사들은 물을 길어 올리고, 흠을 모으고, 양동이에 진흙을 섞어야 한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균열과 틈새를 모두 메웠다. 필요하다면 교회 전체를 물어버리라."

"알겠습니다, 대위님."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재빨리 달아났다.

본은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고통스러운 손가락 끝을 살펴보며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되짚어 보았다. 프라이어 그레이트는 분명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발소리에 그의 시선은 급히 다가오는 경비병에게로 향했다. 경비병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그에게 말했다. "급합니다, 대위님!"

"뭐라고, 이번엔 또?"

병사는 성당 지붕을 가리키며 말했다. "조각상들이 움직입니다!" 본은 잠시 위를 올려다본 후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노려보았다. "실례지만, 달빛 아래에서 조각상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본이 대답했다. 경비원이 본을 데리고 길 반대편으로 향했다.

대성당 앞에서 선장은 그에게 경고했다. "그들이 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움직이게 할 테니까."

"그들은 움직입니다." 라고 군인이 그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본이 수도원에 도착한 이후 겪었던 모든 기이한 사건들은, 또 다른 끔찍한 발견으로 이어졌지만, 그 모든 초현실적인 사건들의 목록에 또 하나의 진부한 클리셰를 추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확실했다고 할 수 있겠죠."

클로디우스 수사는 식당의 어두운 구석에서 주위를 살피며 날카로운 눈으로 본을 주시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성당 주위를 돌았다. 대위는 교회의 윗부분을 살펴보려고 모여든 몇몇 병사들과 합류했다. 병사들이 위쪽을 가리키자, 본은 달과 일직선이 되도록 자세를 잡았다. 클로디우스는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을 더 잘 보기 위해 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책 한 권과 십자가, 그리고 마개가 닫힌 술병을 품에 안은 니콜라스 수사는 기숙사에서 뛰쳐나왔다. 화려하게 장식된 천 조각이 스카프처럼 그의 목을 두르고 있었고, 주름진 끝자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젊은 수사가 햇불을 든 보초병들을 헤치고 나아가자, 그레빌과 그의 호위병들은 니콜라스를 뒤쫓으며 앞서 소리 쳐 길을 비켜주라고 했다. 니콜라스는 목욕탕에 도착하여 병사들을 밀치며 나아가면서 소리쳤다. "그는 사제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당신들 상관아—"

니콜라스는 안으로 들어서다가 얼어붙었다. 병사의 손전등 불빛이 깜빡이는 가운데, 목욕탕 기둥 아래에 쓰러져 있는, 옷자락을 두르고 피투성이가 된 시신을 그는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있는 경비병들이 수도사의 머리를 붙잡고 붉게 부어오른 눈에 젖은 수건을 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니콜라스는 급히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부상당한 수도사 옆에 자신의 물품들을 놓고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니야." 그의 눈 에 눈물이 고였다. "뭔가 잘못됐어. 이 사람은 그가 아니야." 그는 돌아서서 응시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슬픔에 잠겨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이건 아니야—"

니콜라스는 가장 가까이 있던 경비병 위로 뛰어올라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남은 병사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끌어냈다.

"니콜라스! 안 돼! 시간이 없어!" 오디노의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젊은 수도사의 분노를 순식간에 가라앉혔고, 그는 힘없이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병사들을 꾸짖었다. "임종 예식에는 사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병사들은 그레빌을 바라보았고, 그레빌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인 후 목욕탕 입구 쪽으로 물러났다. 병사들도 그레빌을 따라 건물 밖으로 나갔다.

오디노는 니콜라스에게 속삭였다. "이리 오너라, 애야. 네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젊은 수도사는 절망에 빠진 수도사의 입술에 귀를 기울였다. 오디노가 말하는 동안 니콜라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몸을 뒤로 빼고 오디노를 응시하며 물었다. "나사로도 그들 중 하나인가요?"

"입 다물어." 오디노는 거의 부어 오른 눈으로 그레빌을 잠깐 훑어 보며 속삭인 후 말을 이었다.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네." 니콜라스는 주의 깊게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오디노는 기침을 하며 기둥에 머리를 기댔다. "자, 니콜라스, 이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약속해 주게."

젊은 수도사는 얼굴에서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당신은 죽을 겁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은 " " "난 이미 죽었어!" 오디노가 끼어들었다. "자, 내게 맹세해!" 니콜라스는 심호흡을 하고 한숨을 쉬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떨리는 손으로 사제는 목에 두른 화려한 천을 바로잡았다. 그는 천에 입맞춤을 한 후 옆에 놓인 성유병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병뚜껑을 열고 잠시 오디노를 바라보았다. 기침을 참으며 사제는 햇불 빛에 비친 어린 제자의 희미한 윤곽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지만, 니콜라스에게 위로의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애썼다. 그럼에도 니콜라스는 스승의 행동 속에 감춰진 고통과 결의를 알아차렸다. 그는 병을 기울이고 엄지손가락으로 오디노의 이마, 입술, 그리고 심장에 가볍게 십자가를 그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펼쳤다.

오디노는 "주님, 제가 과거에 당신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그가 고해성사를 이어가는 동안 니콜라스는 그에게 몸을 기울여 임종성사의 라틴어 구절들을 중얼거렸다.

마침내 니콜라스는 눈을 뜨고 오디노에게 말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사죄받았습니다, 델론 오디노 데 가르디앙."

오디노는 기침을 하며 싹싹거리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어서 시작하자, 니콜라스."

젊은 수도사는 몰래 뒤를 돌아보았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레빌이 손전등을 들고 문간에 몸을 기울인 채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니콜라스는 몰래 플라스크에서 기름을 따라냈다. 그는 금속 십자가를 들어 올리고 입술을 깨물며 숨이 막히는 것을 억눌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런 다음 그는 오디노 뒤에 몸을 거의 숨긴 채, 자신을 위해 펼친 오디노의 손을 꽉 잡았다. 니콜라스는 십자가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수도사의 손가락 살에 대고 힘껏 잡아당겨 깊은 상처를 냈다. 갑자기 피가 오디노의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렸고, 니콜라스는 따뜻한 피를 플라스크 안으로 쏟아부었다.

그레빌이 급히 달려나가 손전등으로 그들을 비추었다. "니콜라스, 절대로 그를 풀어주면 안 돼!"

"나는 그를 풀어주지 않는다."

그레빌은 플라스크를 발견했다. "피를 흘리는 건 임종 의식의 일부가 아니다. 자네가 그를 죽여야 한다!"

"그레빌, 네 일이나 신경 써! 그건 그의 마지막 부탁 중 하나야."

"그렇다면 그가 죽음만을 원한다면 어쩔 수 없겠군." 그레빌은 오늘 목격 한 모든 일에 멍해진 듯 어깨를 으쓱하며 목욕탕 입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술병이 거의 가득 차자 니콜라스는 서둘러 마개를 닫고 목에서 화려한 천을 벗고 오디노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그는 오디노를 돌아보며 속삭였다. "다 됐습니다, 수도사님."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이 퐁퐁 부은 오디노가 대답했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마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듯 고개를 돌렸다.

"오디노?" 니콜라스는 수도사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흔들었다.

오디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황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는 새장에 갇힌 새야, 이반. 다른 세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

"오디노?" 니콜라스는 다시 한번 그를 흔들었다.

수도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오, 정말이로군! 나사로는 어찌할 바를 모를 거야. 내가 그에게 말 타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그는 킁킁거리며 웃었다. 니콜라스는 뒤로 기대앉아 울었다. 오디노의 얼굴에 근심이 서렸다. "말들은 어떻게 하지? 병사들은?"

마구간을 지키세요.

울고 있던 젊은 수도사는 오디노의 뺨에 입맞추며 말했다. "하느님과 함께 가시오, 친구여."

"그는 아직 말을 본 적이 없어요." 오디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바람처럼 날아오를 겁니다!"

니콜라스는 따뜻한 술병을 꼭 움켜쥐고 일어섰다. 묶인 성경책들을 묶인 오디노 옆에 남겨둔 채. 젊은 제자는 서서 울었다. 이제 그는 죽어가는 스승처럼 주변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가 운 것은 오디노의 생각이 자신 대신 나사로에게 쏠려 있어서도, 오디노가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괴로워서도 아니었다. 그가 운 것은 자신의 가장 순수한 부분이 오디노와 함께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투 나팔 소리가 수도원 경내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니콜라스는 얼굴을 닦고 돌아서서 경비병들이 경계를 이탈해 소집 명령을 따라 달려가는 틈을 타 그레빌이 문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말을 탄 병사가 그레빌을 거의 밟을 뻔했고, 그는 비틀거리며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니콜라스는 깊이 허리를 굽히며 오디노에게 말했다. "친구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급히 향하려 했지만 그레빌이 그의 길을 막아섰다. "수도사님, 그 술병을 들고 어디 가시는 겁니까? 목욕탕을 나가실 수는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딱!”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레빌의 턱에 주먹을 내리쳐 그와 그의 횃불을 벽으로 날려버렸다. 젊은 수도사는 고통을 지르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다.

“오디노도 끝났어! 이반도 끝났고! 이제 나도 끝났어!” 니콜라스는 자신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챙겨 기숙사로 달려갔다. 따뜻한 술병, 성스러운 스승에 대한 마지막 기억, 그리고 수도복 자락 아래 감춰진 소중한고 튼튼하게 잘 박힌 부츠 한 켤레. 그 부츠는 오디노의 마지막 부탁을 기리며 맺은 엄숙한 약속을 지키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안뜰은 소란스러워졌다. 묘지 수색을 포기한 병사들의 실루엣이 남쪽 수도원 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횃불을 든 보조병들이 기숙사에서 나와 대성당을 향해 행진하면서 총성이 주변을 가득 채웠다. 병사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으며, 말발굽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리는 나팔 소리 에 맞춰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거대한 군사 대형이 수도원을 장악했다.

그레빌은 잠에서 깨어나 몸을 뒤척이며 불붙은 소매를 찢아 때렸다. 그의 옆 구석에는 목욕탕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불길 이 이반이 탈출할 때 입었던 옷 더미를 집어삼켰다. 이반은 숨이 막혀 비틀거리며 건물 밖으로 나왔다. 클로디우스가 그를 붙잡았다.

“불길 이 맹렬하게 타고르고 있어!” 그레빌은 턱을 문지르며 숨을 헐떡였다. “니콜라스가 탈출했어.”

클로디우스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상관없어! 나랑 같이 가자!" 두 수도사는 목욕탕 입구의 주황빛 불빛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식당의 그늘진 쪽으로 몰래 다가가 향나무 덤불 뒤로 숨었다.

덤불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병사들이 성당 전체를 에워싸는 unbreakable 대열을 이루고 있었다. 말들이 탄약 수레를 끌고 북쪽 수도원 문을 통과하는 동안, 엄숙한 명령의 외침이 경비가 삼엄한 구역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왜 모이는 걸까요?”

클로디우스는 그레빌의 질문을 무시하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수도원 벽 아래쪽을 가리켰다. "대위님께서 두루마리 위에 돌을 올려놓으셨습니다. 바로 저기, 벽 너머에 말입니다."

군인들 말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그레빌은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숨을 곳이 없어. 우린 잡힐 거야!"

"너무 서두르지 않는다면 괜찮을 겁니다."

그레빌은 획 돌아섰다. "나라고?"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벽 아래쪽에 붙어 있으세요. 어둠이 당신의 은신처가 될 겁니다. 병사들은 성당만 감시하고 있어요."

그레빌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것들을 손에 넣으려 하는 건 바로 당신이군요!"

클로디우스는 그레빌의 옷자락을 움켜잡았다. "시간이 얼마 없어! 저기 봐!" 그는 성당 지붕을 가리켰다. 그레빌은 올려다보니 졸린 뱀 동지처럼 꿈틀거리는 백여 개의 석상이 보였다. 석상들은 계단식 난간의 가장자리마다 모여 있었다.

“맙소사! 움직여!” 그레빌은 십자가를 긁고는 소리쳤다.

“그래!” 클로디우스가 그를 흔들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도망쳐야 해. 그리고 그 시종들도 함께 말이야.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유리할 때, 그것들을 가져오렴. 움직여!”

그레빌은 거만한 수도사에게서 몸을 떼어냈다. "그 이후로 이반이 대위의 손에 어떻게 되었는지 잊으셨습니까? 저는 서류 멍치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순 없습니다!"

“좋아.” 클로디우스는 턱을 치켜들며 쏘아붙였다. 그는 몸을 돌려 뒤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식당에서 투덜거리며 말했다. "내가 그 물건들을 사줄 사람을 구해준다고 해도, 보상이나 동정은 기대하지 마!"

그레빌은 그에게 소리쳤다. "그리고 대위가 칼로 자네를 난도질할 때, 자비나 임종성사는 기대하지 마라!" 클로디우스는 심술궂게 손을 흔들며 그를 내쫓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레빌은 몸을 돌려 덤불을 헤치고 성당 저편 모퉁이에서 햇불을 든 갑옷을 입은 말이 질주하는 것을 보았다. 본 대위는 말의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지나가는 수레에서 탄약을 챙기는 분주한 병사들의 머리 위로 햇불을 비추었다.

"창병들아, 내 말을 들어라!" 본은 교회를 에워싼 병사들에게 외쳤다. "몸을 낮추고, 창끝보다 훨씬 아래로 엎드려라. 무기를 땅에 단단히 고정하고 왼손에 든 칼을 준비하라. 긴 칼을 가진 자는 칼집에서 빼내어 앞발 옆에 꽂아라. 내 신호에 맞춰 칼을 번쩍이고 큰 소리로 외쳐 지붕 위의 악마들을 무기 위로 유인하라. 근위대 하사관들아, 내 명령을 수행하라!" 기마 장교들이 주변에 늘어선 병사들의 투구 너머로 본의 명령을 외쳤다. 창병과 투창병들이 돌격했다.

그들은 칼을 휘두르며 앞으로 나아가 최전선 방어선을 형성했다.

“석궁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신호를 보내면 너희는 마음대로 무기를 발사하라.”
무릎을 꿇은 자세를 유지하고 화살을 집어넣지 마라. 화살은 네 옆 땅바닥에 모아라. 너희는 가진 모든 화살을 사용하여 앞에 있는 병사들을 지켜야 한다. 근위대 하사관들아, 내 명령을 수행하라!” 갑옷을 입은 기병들이 대형을 지시하자, 석궁병들이 파도처럼 쏟아져 나와 창병들을 무기로 엄호했다.

본은 성당 지붕을 살펴본 후, 점점 늘어나는 군중 옆으로 말을 몰았다. "궁수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라. 석궁병들 뒤에 똑바로 서서 전방 부대를 엄호하라. 입으로 화살을 쏘는 자는 두 발 이상 물지 마라. 보급병을 부르기 전에 악마들에게 모든 화살을 쏟아부어라!" 궁수들이 벽처럼 앞으로 나아갔고, 본은 말을 돌려세우며 외쳤다. "보급병들아, 내 말을 들어라! 수레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나와라. 몸을 낮추고 병사들의 발치에 보급품을 내려놓되, 발굽 높이보다 낮게 탁탁 쳐서 신호를 보내라. 근위대 하사관들아, 내 명령을 수행하라!"

그리고 대위가 보병들에게 지시를 전하는 동안, 그레빌은 클로디우스의 희미한 실루엣이 급히 달려나가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수도원 벽 아래쪽을 따라 겁먹은 듯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본의 시선이 시시각각 변하는 방향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다.

본은 손을 높이 들고 병사들을 준비시켰다. "석궁병들아, 악마들을 향해 첫 번째 화살을 쏘아라! 악마들 사이사이를 균등하게 조준해라! 창병들아, 내 신호에 맞춰!" 본은 교회의 위쪽 난간들을 훑어본 후 팔을 흔들었다. "발사!" 화살 세례가 성당을 뒤덮고 석조 기괴한 조각상 위로 불꽃이 튀는 순간, 클로디우스는 앞으로 돌진하여 돌을 뒤집고 두루마리를 움켜쥔 채 식당으로 달려갔다. 창병들은 칼과 창을 부딪치며 야유를 퍼부었고, 석궁병들은 서둘러 재장전했다.

조각상들은 지붕 가장자리 가까이로 기어가 자신들을 소환한 군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돌로 만든 짐승들은 생김새가 제각각이었다. 보름달 아래에서 그들의 기괴한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어떤 것은 새의 머리를 하고 있었고, 어떤 것은 개와 뱀의 머리를 하고 있었다. 몸은 사자, 인간, 돼지 등 여러 짐승이 뒤섞인 듯했고, 발톱, 송곳니, 발굽, 꼬리까지 갖추고 있었다. 각각은 여러 생물이 기괴하게 합쳐진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 모든 독특함 속에서도 공통된 특징 하나가 있었다. 바로 모든 조각상의 등에 얇고 거대한 날개 한 쌍이 달려 있었다는 것이다.

“풀려!” 또 한 차례 볼트가 날아들었고, 불꽃이 돌로 만든 기괴한 조각상들을 휩쓸었다. 조각상들은 웅웅거리는 날갯짓과 날카로운 이빨, 할퀴는 발톱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날뛰었다. 비명과 포효가 수도원 경내에 울려 퍼졌다. 조각상들은 서로에게 달려들어 계단식 난간 위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웠다. 그들은 성당 지붕을 넘어 병사들 위로 쏟아져 내렸고, 마치 달빛 비치는 들판 위로 화강암 까마귀 떼가 떼 지어 날아드는 것 같았다.

“창! 화살! 무장병!” 본이 고함쳤다. 그러나 대열은 무너지고, 무기는 떨어지고,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지옥의 계략이 시작된 것이다.

클로디우스는 말아 놓은 책장을 들고 식당 옆쪽으로 나아가며 그레빌을 지나치면서 "서둘러! 뒤돌아보지 마!" 라고 외쳤다. 두 수도사는 무시무시한 공격의 함성과 비명 소리를 피해 안뜰을 가로질러 달렸다. 클로디우스는 목욕탕 뒤편 덩굴 속으로 뛰어들어 그레빌을 붙잡았다. "남쪽 문은 무방비 상태야! 수도원 외벽을 돌아 마구간으로 가서 말을 구해야 해!" 클로디우스는 덩굴을 헤치고 나와 목욕탕의 그늘진 면을 따라 재빨리 올라갔다.

그레빌은 그를 뒤쫓아 달려가다가 옷자락 더미에 걸려 넘어져 달빛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그제야 그는 이반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의 눈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레빌은 황급히 일어 서서 클로디우스를 불렀다. 클로디우스는 멈춰 서서 그를 돌아보았고, 그레빌은 그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일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감이 서려 있었다. 그레빌은 얼어붙었다. "돌아서지 마라." 클로디우스는 쏘아붙이듯 말하며 수도원 문 쪽으로 물러섰다.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겠다." 마구간."

그레빌은 어깨 너머로 거대한 돌로 된 기괴한 형체가 자신을 몰래 따라오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것은 그 리핀을 닮았는데, 사자의 날개 달린 몸에 거대한 머리와 발톱을 가지고 있었다.

맹금류.

그레빌은 목욕탕 벽에 기대어 흐느껴 울었다. "클로디우스, 도와줘." 그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목욕탕 앞쪽으로 다가갈 때마다 화강암 괴물도 함께 앞으로 나아갔다. "제발, 저 괴물을 쫓아내 줘!" 하지만 클로디우스는 도망쳤다. 그레빌은 비명을 지르며 건물 모퉁이를 돌아 밖으로 솟아오르는 연기 속으로 몸을 숨겼다.

목욕탕 입구에 쌓여 있는 목욕 가운 더미가 어둡한 내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레빌은 중앙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피투성이가 된 채 여전히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는 오디노의 넓은 등 뒤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오디노는 이미 너무 죽어서, 이제 문을 통해 들어와 어둠 속을 헤매고 바닥을 할퀴는 끔찍한 괴물로부터 흠뻑이는 옷을 구할 수 없었다.

클로디우스는 안전한 곳으로 달려가던 중, 이미 진지를 버리고 도망친 병사들과 부딪혔다. 수도사가 소중히 여기던 페이지들이 땅바닥에 흩어졌고, 그는 그것들을 자신의 손에 주워 담았다.

손과 무릎으로 기어갔다. 그러다 그는 남쪽 문을 향해 달려갔고, 공포에 질려 입을 크게 벌린 채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은 안뜰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때 날아오는 조각상이 쏟아져 내리자 그를 땅에서 낚아챘다. 그 기괴함은 성당 지붕에서 날아온 어떤 괴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뱀의 몸에 염소의 머리, 그리고 거미 여러 마리의 다리처럼 생긴 다리를 하고 있었다. 그 끔찍한 괴물은 클로디우스를 수도원 담장을 넘어 하늘 높이 날려 보냈다. 그의 목구멍에 담긴 공포가 온 시골에 울려 퍼질 만큼 높이 날아 올랐다. 그것은 선량한 수도사를 휩쓸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숲 속 깊은 곳, 눈물의 흔적만이 남아 있는 가장 어두운 곳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검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바스러지기 쉬운 페이지들.

여전히 수도원 안에 있던 본 대위와 기마병 11명은 굉음을 내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북쪽 문 앞에서, 말들이 숲 속 공터를 가로질러 질주하며 무라트 마을을 향해 수도원 길을 따라 돌진했다. "뭉쳐라!" 본이 소리쳤다. "칼은 높이 들고, 머리는 낮춰! 나무 아래로 숨어!" 하지만 숲 속의 빈 공간마다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이는 또 다른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 나갔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돌의 날카로운 발톱에 말이 짓눌려 쓰러질 때마다, 또 다른 말이 쓰러졌다. 참으로, 저녁은 땅속 깊은 곳에서 웃으며 이리저리 거니는 사악한 천사의 것이었다.

그리하여 장 프랑수아 블라시 추기경은 거의 잊혀진 나라인 번역본 모음집에서 몇 마디를 읊는 것만으로 교황청에서 가장 요새화된 두 수도원 중 하나인 가르 디앙 수도원을 단독으로 파괴하고, 국왕 근위대 중 가장 유능한 부대인 본 대위의 정예 부대를 궤멸시켰습니다. 하루살이가 짹짹하고 죽는 찰나의 순간, 단 한 번의 신성모독적인 행위로, 한 남자의 복수심은 400명의 병사, 사제, 그리고 시종들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세 개의 문석 중 두 번째 문석을 열어 거대한 심연의 정점을 이루는 대봉인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무너져가는 수도원 훨씬 아래, 불타는 지하 묘지 바로 아래, 지옥의 심연에서 루시퍼의 천사 같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저주받은 상황은 그녀의 온전히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

라자로는 반나절 동안 커다란 달과 별빛 아래 정확히 서쪽으로 향하는 여정을 떠났다. 그는 오베르뉴 지방의 바위투성이의 거친 언덕을 오르고, 그의 감각으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광활하고 그림자 드리운 풍경 속을 헤쳐 나갔다. 길을 가다 보면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잠시 멈춰 내면을 성찰하는 고요한 순간들이 찾아왔다.

그러한 불안한 감정의 근본 원인으로 여겨진다.

간단히 말해서, 라자루스는 수도원 지하 묘지, 즉 그가 떠나온 지하 세계의 경계만을 알고 있었다. 터널 벽은 굳건히 서 있었고, 견고하고 안내하는 길은 영원히 변하지 않았다. 지하 묘지의 변함없는 예측 가능성은 그를 괴롭힐지도 모르는 순간적인 불안을 달래주었고, 이제 그곳과 그곳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것은 비슷한 의미를 지녔다. 다만 이제 그는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화강암처럼 무거웠다.

나사로는 오랫동안 자신의 꿈의 메커니즘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꿈의 세계를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꿈이 끝없는 악몽으로 변하더라도 언제든 스스로 깨어나 좀 더 즐겁고 예측 가능한 모습으로 꿈을 되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나사로는 종종 이 세상 너머의 세계를 꿈꿨다.

그는 지하 묘지에 대해 알게 된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맞춰보며 그곳의 신비로움을 되짚어보았다. 하지만 그곳이 지금처럼 예측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악몽으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안내하는 길이나 구불구불한 돌길은 없었고, 울퉁불퉁하고 예측 불가능한 풍경이 끝없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다. 어쩌면 그의 괴로움은 아버지의 목소리, 즉 지하 묘지의 횃불을 다시 밝히려는 아버지의 외침을 떠올릴 수조차 없다는, 그 순간에서 깨어날 수 없다는 불안한 생각에 묻혀 있는지도 모른다.

추위에 지치고 녹초가 된 나사로는 험준한 능선들을 넘어 마지막 능선에 올랐다. 그는 정상에 섰다. 그의 더러운 옷자락이 세찬 동풍에 깃발처럼 펄럭였다. 그는 어두운 눈구멍으로 깊은 계곡과 메마르고 바위투성이인 강바닥을 훑어보았다. 돌투성이 골짜기 건너편에는 가파른 절벽이 작은 산비탈에 솟아 있었고, 그 절벽 아래에는, 나사로는 울부짖는 입을 가진, 마치 인상이 찌힌 얼굴처럼 보이는 놀라운 형상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산의 입이었다. 이반 못지않은 비장한 결의를 다진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마치 교수형을 선고 받은 오만한 사람처럼 능선을 내려갔다. 그는 돌투성이의 그늘진 계곡을 지나 절벽으로 향했고, 마침내 그 거대한 입이 그를 삼켜버렸다.

[8장 끝]



이 문학 작품은 창작 되었습니다. d는 오직 ~ 에 헌정하기 위해

에드거 앨런 포 (1809-1849)

— 그의 업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



~[고딕노블.org](https://www.gothicnovel.org)~